

The role and achievements of community nutrition in the society

Sumi Mo

Honorary President of the Society

지역사회영양학의 역할

모수미

대한지역사회 영양학회 명예회장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가 1995년 12월 4일에 창립되어 금년 10주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지역사회영양학의 역할을 되새겨 보면서, 10년동안 여러분께서 본 학회를 중심으로 목표를 향해, 목표 달성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그 동안의 업적과 성취도를 되돌아보는 결실의 계절이 왔습니다. 성취도를 생각하는 소위 평가는 다음의 새로운 방향모색과 계획수립에 필수적인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I. 지역사회영양학의 개념

커뮤니티 뉴트리션(community nutrition)이 우리말로 지역사회영양학이란 명칭 아래 학문으로 정착한 것은 70년대입니다.

지역사회(커뮤니티)란 무엇이나 하면 「일정한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공동의 가치관과 이익을 나누면서 생활, 직업, 학문, 취미 등 모든 삶의 목표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생활공동체라는 사회집단」을 의미합니다. 이 커뮤니티는 군중이 아닌 사회집단이므로 한 곳에 밀집된 것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저기 산재된 것도 공동성이 있는 특성으로 볼 때에는 이를 묶어서 하나의 특정지역사회로 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는 저소득층의 집단이 여기저기 산재하고 있는데 이를 총괄해서 low income community 즉 통속적으로 달동네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현대는 자급자족하는 시대가 아니라 특히 인접한 날로부터 많은 식량을 수입하거나 서로 바꾸어서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과 개량종자, 개발종자, 농업축산 첨단기술까지 교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커뮤니티의 크기와 범위는 마을에서부터 나라 전체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더욱 널리 확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즉 소생활공동체, 중생활공동체, 대생활공동체로서 공동으로 직면한 여러 가지 과제를 풀어나가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커뮤니티 즉 지역의 개념이 확실해지면 지역사회영양학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영양학은 개인과 생활공동체인 집단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 환경, 경제, 농업, 보건, 교육문화적 특성을 학제적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으로 영양에 관련시키면서 영양개선의 계획과 실천과 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종합과학이며 시스템과학(system science)」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II. 지역사회영양학의 탄생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 곳곳에는 빈곤과 영양결핍과 질병으로 허덕이는 인구가 증가일로

에 있게 되자 FAO/WHO/UNICEF의 UN기는 applied nutrition 프로그램을 이재국주민을 위해 범세계적으로 펼쳐나갔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데 UN기구는 먼저 과거 수백년동안 여러 식민지에서 주민들의 보건 영양을 다스린 영국의 런던대학과 유대를 맺으면서 applied nutrition이란 새로운 혁명아래 시스템 영양학(system sciences on nutrition)인 접근으로 국제코스를 개설하여 세계 각국의 영양학 전문인을 훈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진흥청이 UNICEF/FAO의 후원으로 응용영양 국가사업(ANP)을 만드는 동시에 응용영양지도자를 양성하고 전국에 배치하여 농촌영양개선사업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그 동안 수 명의 우리나라 영양학 전문인이 런던대학에서 응용영양학의 국제훈련을 이수하고 돌아와 응용영양학과 응용영양 국가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학과 농촌진흥청이란 정부기관과의 관·학협동으로 이루어진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용영양학을 새로이 개설하는 요망이 높아짐에 따라 1980년에 응용영양학의 명칭보다 지역사회영양학이란 명칭을 채택하여 신과목을 만든 동시에 지역사회영양학의 대학교과서를 출판하게 되었고 방송대학은 전국의 라디오망을 통해 방송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응용영양학의 학명을 개칭할 때 여러 가지 명칭이 발상되었으나(공중영양학, 국민영양학, 민중영양학, 실천영양학, 보건영양학, 영양개선학, 종합영양학, 시스템영양학, 사회영양학 등등) 지역사회영양학이란 학명을 채택했습니다.

그 후 각 대학에서는 몇 가지 명칭으로 이에 관한 교과과목이 개설되어 교과서도 몇가지 출판되었습니다.

Ⅲ. 우리나라 지역사회영양학의 발전과 학회의 역할

8·15 해방직후 우리나라는 서울농대 농화학과, 서울의대 생화학교실, 이화대학 가정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영양학자 동인회와 같은 소규모의 대한영양학회가 개설되어 국제영양학 교류의 창구역할을 이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1960년대에 한국영양학회 창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식량영양학회, 식품과학회, 동아시아영양학회, 식문화학회 등 여러 학회가 창립되었고, 영양·식품의 전문인도 많아지면서 사회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편향된 영양학의 인식은 세월이 가고 사회가 변하면서 영양학의 방향을 조정하는 사회적 요구와 지역사회영양학 전문가들의 희망이 확대되면서 드디어 1995년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의 학회업적은 엄청 많습니다. 평가하는 시점에 왔고, 그 평가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학회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영양학회 활동은 다섯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 학술연구 발표회, 강연회, 연찬회, 심포지움, 전시회 등의 개최
- 학술지, 교육자료, 도서, 기술 정보지 등의 발간
- 영양교육매체 개발과 보급
- 건강관련 정보 제공
- 공익사업의 협찬, 정책 건의 및 지역사회영양에 관한 자문

매년 국내학술대회, 국제학술대회 및 학회간 공동학술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영양취약 인구집단, 산업체 근로자 및 국민 전체의 영양 상태 개선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영양학 연구와 영양·보건에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 1. 학술대회 및 활동내역

날 짜	연 혁
1996. 05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창립 기념 강연회 - 양극화된 지역사회 영양문제
1996. 15	추계학술대회 - 영양교육의 이론과 실제, 일본의 아다 치 교수 초청
1997. 05	춘계학술대회 -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상담
1997. 11	국제학술대회 -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서비스 접근방향 미국의 길레스피 교수, 일본의 가가와 교수 초청
1998. 05	춘계학술대회 - 경제위기 시대의 합리적인 식생활
1998. 11	추계학술대회 - 건강검진에서 영양스크리닝의 필요성과 실용화
1999. 05	춘계학술대회 - 노년기의 식사지침과 급식방향
1999. 11	추계학술대회 - 새천년과 건강한 영유아
2000. 02	국제심포지움 - New Dimensions of Nutritional Management for Elderly
2000. 05	춘계학술대회 - 식사의 질 평가와 대국민 영양교육 전략
2000. 11	추계학술대회 - 통일한국을 대비한 영양감시체계 개발
2001. 05	춘계학술대회 - 한국인의 건강체중과 영양. 처음으로 대전에서 개최
2001. 11	대국민 홍보 심포지움 개최 - 밥중심 식생활, 왜 중요한가 추계학술대회 - 어린이 영양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일본의 사카모토 교수 초청
2002. 02	국제심포지움 - Nutritional Management for the Elderly
2002. 05	춘계학술대회 - 한국인의 걱정소급섭취를 위한 식생활 전략
2002.09.28	제2회 쌀 소비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 심포지움 개최 쌀을 이용한 밥중심 식생활 : 어떻게 실천하나
2002.11.09	추계학술대회 -모성 영양과 차세대 건강 증진
2003.03.20	심포지움 - 노인성질환의 예방과 영양관리의 실용화
2003.05.03	춘계학술대회 및 비만다이어트 박람회 - 건강한 삶을 위한 외식 및 단체급식
2003.11.08	추계학술대회 - 한국 중년 여성의 건강과 영양관리
2004.05.09	춘계학술대회 - 암 정복에 도전하는 예방영양
2004.12.04	추계학술대회 - 저출산 시대의 청소년 영양 : 그 현주소와 관리 전략
2005.03.16	특별세미나 - 미국의 영양사 교육과정, 미국의 소아비만감소를 위한 학교영양 교육
2005.04.30	춘계학술대회 - 유전자 상담과 맞춤형 영양관리
2005.07.20	공청회 -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의무화 기반 마련을 위한 공청회
2005.10.08	10주년기념국제학술대회 - Achieving Nutritional Well-being through Community Nutrition

지역사회영양학의 발전은 이에 관련된 연구가 기본이 되며, 학회지에 수록되고 있습니다.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는 연 6회 간행되고, 영문학회지도 연 4회 발간되고 있습니다. 더욱 자랑스러운 것은 Chemical Abstract에 등록된 사실입니다.

연구논문의 질적향상과 목적이 확고한 연구와 연구결과의 사회적 활용이 실천되는 마음가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항상 국제정보에 밝고 국제적인 학회로 발전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희망찬 학회로 더욱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IV. 우리나라 지역사회영양학의 역할

최근의 우리나라는 과학기술과 의료의 발전과 경제성장으로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건강수준이 좋아져 장수사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인구학적으로도 사회고령화와 사회 노동력의 고령화로 새로운 건강, 의료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변화에 따른 환경의 오염

과 파괴로 건강저해요인이 많아졌으며 풍요한 식생활 환경은 과거의 식습관과 식행동을 변용시켜 각종 식원성(食源性) 및 영양성질환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강문제는 개인단계로부터 지역사회 전반의 큰 문제로 생각해야 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욱 더 국제화되는 사회 속에서 개인으로부터 지역사회 집단, 국가 등으로 광범위한 수준까지 건강증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영양학을 보다 과학적, 조직적으로 실천하는 능력이 요구되며 이를 시스템영양학으로 이끌어 가는 지역사회영양학의 역할과 그 필요성이 더욱 더 강도 높게 요망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영양학은 개개인의 건강을 존중함은 물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공동체의 건강문제를 중시하고 해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영양학은 시대의 조류에 민감하고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종합학문 및 응용학문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영양학은 지역집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대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인구동태에 따른 식생활 문제

- 인구증가와 식생활의 질
- 인구변동과 식생활의 변화

■ 산업화에 의한 영향

- 식량생산 및 가공의 산업화
- 식품산업의 홍보화와 식품선택에 있어서의 자주성 문제
- 집단급식 수요의 증가

■ 인간관계의 변화에 따른 문제

- 식생활의 개인화
- 핵가족화와 식생활양태의 변화
- 관혼상제 간소화에 따른 회식의 변화

■ 사회계층의 격차에 따른 식생활 변화

- 생활수준의 격차와 식품소비 양태의 차이
- 사회복지시설에 있어서의 식사
- 도시 영세지역과 도서벽촌의 식생활변동
- 과소한 농촌의 식생활

■ 취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문제

- 맞벌이 세대의 증가와 식생활
- 근로자의 식생활
- 단신 근로부임자 증가와 식생활
- 저임금 근로자의 식생활
- 농번기의 공동 취사

■ 기술발달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식생활의 변화와 문제점

- 생활노동의 기계화에 의한 영양문제
- 생활시간과 생활공간의 확대에 의한 식생활의 변화
- 식품가공, 재배, 양식 등의 식량생산 기술발달에 따른 이용식품의 변화

■ 생활관, 가치관의 변화

- 식생활의 의의 변화
- 음식에 대한 영양학적 인식의 변화
- 식품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우리나라는 이미 지역사회영양학 및 이에 관련된 분야를 국내외에서 연구하고 활약하는 전문 인재를 많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영양학 발전은 물론 병원, 보건기관, 산업단체, 사회복지단체 등의 영양학, 생활개선지도사, 식품·영양연구소의 연구원, 각종 유관 정부기관 등 각각 다른 배경을 가진 학자와 전문요원들의 활발한 참여에 의해 발전이 기대됩니다.